# 中 가짜 '린포체' 소동, 결국 체포

## 갈취금액만 300억원대 성폭행 피해자도 나와

### 10여년 전 교도관 해직 후 티베트사원서 불교 접하고 린포체 사칭, 재산 착복해

박영빈 객원기자



가짜 린포체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왕싱푸. 사진출처=환구시보

티베트 불교에서는 환생의 교리에 따라 고승들이 제자들을 이끌고 불사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환생하여 찾아온다고 믿는다. 이렇게 환생하여 태어난 고승들을 '린포체'라고 부르며 특별히 존경하고 있다. 한편 이 '린포체'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이 등장, 여러 사기행각을 벌여오던 것이 결국 덜미가 잡혔다. 자칭 린포체였던 이 중국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기막힌 소식을 지난 17일, '야후재팬 뉴스', '뉴스 포스트 세븐' 등의 외신들이 특별보도했다.

문제를 일으킨 중국인 왕싱푸(王興夫)는 중국 산둥(山東)의 지난시(濟南市)에 소재한 교도소의 교도관 출신으로, 티베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족이나 스스로를 '톱상땐진 린포체'라고 자칭하며 신도들을 모아왔다.

왕싱푸는 10여 년 전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원래의 교도관에서 해고, 떠돌이 생활 중 인연이 된 티베트 불교사원에서 불교를 접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원의 대중 스님들과 생활하며 기초적인 불교철학과 수행을 배우며 출가한 것으로 전했다. 이때의 법명인 '톱상땐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 신분마저 한족에서 티베트족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환생한 린포체라고 자칭했다.

특히 출가 이전 부터 수행해 왔던 기공을 이용, 자신이 고안했다고 하는 밀교기공이라는 사이비 수행법을 시연하는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신도들을 끌어모았다. 왕싱푸의 교도관 시절을 기억하는 한 지인은 "교도관 시절에도 자신을 기공의 달인이라고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곧잘 시연을 보이는 등, 탤런트적인 재능이 풍부했다"고 전했다.

왕싱푸는 베이징, 선양, 청두, 지난 등 8개의 도시에 자신의 사원을 창건했으며 등록된 신도만 3천여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들은 기공수강료라는 명목하에 매달 5천 위안(86만원)부터 7천 위안(120만원)가량 납부했으며, 예불에 사용된다며 저가의 꽃병 등을 수십만 원씩 받아 챙겼다. 또한 수행의 성취도를 4단계로 설정, 최고위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거액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착복한 재산은 중국전역에 12채의 호화저택, 현금, 귀금속과 보석 등 2억 위안(한화 약 340억원)으로 확인됐다. 재산들은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숨겨둔 아내와 아들의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전했다.

왕싱푸가 불교계에서 점차 명성을 얻어가면서 의심의 시선도 늘어났다. 결국 그의 교도관 시절을 아는 한 제보자가 인터넷을 통해 정체를 폭로, 피해를 입은 신도들이 고소에 따라 결국 체포 됐다.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재산의 착복뿐만 아니라 최소 10인 이상의 여신도들이 성폭행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법원은 가짜 린포체 왕싱푸에 대해 사기죄와 폭행죄로 징역 25 년의 판결을 받았다. 주국 네티즌들은 "교도관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수감자로 다시 교도소로 돌아 오게 됐다.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며 비판을 가했다.

# 이제 스님도 '인플루언서' 시대

## SNS 팔로워 3만 명 치카이 스님 '화제'



모두를 위한 불교를 알리고 싶다는 치카이 스님. 사진출처=위드뉴스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지만 일반 대중들과 불교 간의 거리감이 강한 일본. 이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강향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스님이 대중을 위한 불교를 이야기해 화제다. 트위터와 유튜브 상에서 3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마츠자키 치카이 스님을 지난 2월 19일, 일본의 '리얼 사운드', '위드 뉴스' 등이 소개했다.

후쿠오카현에 소재한 정토진종 사찰인 에이메이지(永明寺)의 주지인 치카이 스님은 소위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스님이다.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님은 남녀노소 모든 계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에는 코로나로 인해 봉축행사가 취소되자, 트위터가 공유되는 만큼 관욕식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해당 공약은 일본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받아 총 3만 5천회의 관욕식이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됐다.

한편 치카이 스님은 최근 그동안 SNS상에서 공개한 내용들과 새로운 원고들을 합쳐 새로운 불교서적도 출간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느긋한 불교입문〉이라는 책을 낸 스님은 "스님이란건 쉽게 말해 부처님이라는 스타가 너무 좋아서 투신한 팬 같은 존재"라며 스님이라는 이미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원래 불교는 불도(佛道), 부처님의 길이다. 길은 거기 있는 그곳을 걷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길의 방향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교의 가르침이란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불교와 타종교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불교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부처님을 마치 초인적이고 신비한 존재로 이해하지 말자. 지금의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존재가 될 가능성을 말해준다는 것에 기쁘게 생각해야한다"고 해석했다. 스님은 이렇게 불교를 이해하는데 "즐겁고 편안한 것이 중요하다. 당장 스님인 나 사진도 '재미'라고 생각하며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며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캐나다 비구니 스님들, 학업 포기 속출

## 브루데넬 불교교육기관 지역 반대에 기숙사 확장 좌초

### 지역 의회서 확장 계획 부결 기관 내 수용시설 한계 봉착 나이어린 불교학도들도 귀국



GWBI(Great Wisdom Buddha Institute)의 학생들. 출처=Buddhistdoor Global

캐나다 남동부 프린스 에드워드섬의 브루데넬(Brudenell)에 위치한 한 불교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건축물확장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강제 출국했다. 기관 내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2월 19일 C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광활한 지혜 불교 교육기관' (Great Wisdom Buddha Institute, 이하 GWBI)은 건축물 확장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의회에서 7대3으로 부결돼 좌절됐다.

이에 머물 곳이 없어진 14~17세의 불교학도들은 대만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각지로 흩어졌다. 외신들은 "이 소식을 접한 어린 불교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GWBI에서 수행해 온 이본(Yvonne) 비구니 스님은 "처음에 아이들(불교학도)은 조금 걱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어야만 했다"며 "그들은 우리는 왜 여기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까. 우리 때문일까라며 좌절했다"고 했다.

지난 9월 마을 투표까지 이어질 정도로 지역민들은 여러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집값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후문이다. 불교 신자들과 가족들의 유입으로, 지역의 거주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기에 지역 물가와 집값이 너무 비싸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는 것이다.

불교학도들이 떠난 후 GWBI를 지키고 있는 사브리나(Sabrina) 비구니 스님은 "그들은 눈싸움을 너무 재밌어했고, 늘 활기찼다. 그들은 이곳을 매우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줘 좋았다"며 "그들이 떠난 후 수도원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지만, 고요는 계속 그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아쉬워했다.

GWBI는 시의회 결정에 항소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지역민들은 그들의 항소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소를 포기했다. 대신 스님들은 지역민들과 우호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를 얻기로 했다.

이본 스님은 "우리는 지역민들에게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여달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며 "그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신뢰받을 만큼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했다.

GWBI는 지역민들과 우호관계를 구축할 때까지 기숙사 공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들은 121헥타르(121만㎡) 부지에 최대 1400명 비구니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축할 계획이다.

이본 스님은 "우리가 대규모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비구니가 비구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회에서 불교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우리는 비구니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 日서 만나는 한반도 불교 성보

## 교토 고려미술관 '조선의 부처님' 특별전

### 4월 1일~8월 17일 진행 소장 불교문화재 공개해




일본의 간송으로 평가받는 1세대 재일교포 정조문(1918~1989) 씨가 건립한 일본 교토 소재 고려미술관에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연다.

고려미술관(관장 이노우에 미츠오)는 4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반도의 불교미술전- 조선의 부처님'을 주제로 봄·여름 전시회를 연다. 전시에는 정조문 씨가 수집했던 한반도 전래 불교미술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고려미술관은 "한반도의 부처님의 얼굴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미소는 우리를 치유케 한다"면서 "전시회에서는 각 시대의 불상을 중심으로 불화와 불교 도구 등 한반도의 불교 미술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시기관에는 큐레이터의 갤러리 토크도 진행된다. 전시 기간동안 매월 2회 진행하며, 정원은 10명으로 예약제로 운영된다.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며 휴관일은 매주 수요일이다. 입장료는 일반인은 500엔, 고등학생과 65세 이상은 400엔이며, 중학생 이하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